

# 문화의 교류, 한국의 외국건축

Exchange of Cultures :

Foreign Architect-Designed Buildings in Korea

## 해방공간의 이데올로기와 남·북건축

Ideology and Architecture Since 1945 to 1950

The Ordeal Period of Experiment and Conflicts of Ideology

### 01\_ 연재를 시작하며

박길룡 / 국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02\_ 개항기와 일제강점기

윤인석 /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2-1 양풍건축의 이입

2-2 서양건축가들의 활동

2-3 압제자의 건축

### 03\_ 한국의 근대건축과 외국건축

안창모 / 경기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3-1 해방공간의 이데올로기와 남·북건축

3-2 경제개발과 외국건축

3-3 타자를 위한 건축과 우리건축의 모습

3-4 세계를 향한 눈

### 04- 단편(斷片)적 도시경관의 고고학

구영민 / 인하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4-1 수직의 욕망

4-2 애브뉴 오브 아메리카

4-3 패션게임 - 소비의 사막

# 해방공간의 이데올로기와 남·북건축

안창모 / 경기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by Ahn Chang-mo

이 연재는 개항이후 한국건축문화의 전개과정을 문화의 잡종교배라는 측면에서 외국건축이 우리의 건축문화와 어떻게 함께 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러한 시각은 개항이후 외국건축문화의 이식이나 외국건축의 영향하에서 한국의 근현대건축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수동적 입장이거나 외국건축에 대한 우리의 주체성 찾기에 초점을 맞춘 수구적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갔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잡종교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해방공간은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면서 사회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의 잡종교배에 대한 첫 실험의 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해방은 되었지만 남한이 자본주의 체제의 연속성에 있었던데 반해, 북한에 사회주의 체제가 도입되었고, 상이한 두 체제 사이의 갈등구조는 남한의 해방공간에서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개항후 이 땅에 들어온 전통건축과 서양건축과의 잡종교배 이상의 강한 잡종교배가 남한의 해방공간에서 시도되었지만 실패한 후 전쟁을 통해 물리적으로 분단된 남과 북에서 각기 자라온 건축문화가 다시 한번 잡종교배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편의상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뉘어진 해방 이후를 말게 되었지만 식민지배에서 해방된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 따라 시간적 흐름 외에 이데올로기의 차이로 인해 '공간적으로 이분화된 남과 북'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작용하는 시기의 건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안겨주었다.

1976년 문학에서 처음 제기된 '해방공간'은 시기적으로 해방에서 단독 정부가 수립되는 1948년 8월 사이에 문학에서 좌우익의 이념논쟁으로 전개되던 시기를 지칭하는 개념어로 사용되었다. 문학에서 사용된 '해방공간'이라는 개념어를 건축에 사용하는 것은 이 시기가 해방으로 새로운 건축세상의 판을 짜는 과정에서 상이한 이데올로기를 두고 자신들의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방공간이라는 개념 틀에 비추어보면 한국건축계의 해방공간은 해방에서 단독정부수립



조선 건축 창간호 표지

까지가 아니라 6.25전쟁이 발발하기 까지로 확장될 수 있다. 이는 남한의 해방공간에서 좌우이데올로기의 갈등구조가 타 문화예술분야와는 달리 단독정부 수립이후에 더욱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건축계의 좌우이념 대결은 전쟁 직전에 최고조에 달하면서 조선건축기술협회의 해산과 대한건축기술협회의 창립 그리고 젊은 건축인을 중심으로 한 신건축가협단의 창립이 이어지면서 이념의 갈등구조는 노소간의 갈등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태평양전쟁의 종전과 함께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세계열강의 대립구도 속에서 형성된 냉전체제와 함께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각기 다른 이데올로기에 의한 사회체제 형성기에 남과 북의 건축사에게는 각기 자신의 도시·건축의 모습을 만들어가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남과 북의 건축계가 해방으로 직면했던 동일한 상황은 해방전에 이 땅의 건축을 주도했던 일본인이 패전으로 자국으로 철수하면서 생긴 공백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백을 어떻게 메우고 새로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은 남과 북이 확연하게 달랐다. 그 차이는 해방공간의 남과 북에서 각기 결성된 '조선건축기술단'과 '북조선건축동맹'의 강령에서 명료하게 드러났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남북 건축단체의 성격 비교

조선건축기술단(1945.9.1)	북조선건축동맹(1945.8.25)
건축에 관한 각종 연구조사 연락 및 지도를 행하여 사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아울러 건축국책에 협력함.	민주과업 실천과 건축문제 해결, 건축기술자의 정치적 기술적 향상, 학술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에 관한 학술기예의 연구 및 조사</li> <li>• 건축기술자의 등록 및 지도</li> <li>• 건축교육의 진흥 및 기술자의 기능향상</li> <li>• 건축 각 부문 및 건축과 사회적 부문과의 연락 협력</li> <li>• 건축국책에 관한 조사연구 및 그 실시에 협력</li> <li>• 건축에 관한 사회인식의 계몽과 보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기술자의 정치적 사상적 훈련: 건축사상운동의 적극 참여와 건축 모리업자의 숙청 단행</li> <li>• 건축기술자의 실태조사와 기술문제 연구계획에 주력</li> <li>• 건축기술수준 향상과 기술자 양성을 위한 교육</li> <li>• 건축문화 향상을 위한 전문잡지 발간과 번역/저술</li> <li>• 일반대중 대상의 강력한 선전사업 전개</li> <li>• 민족문화건설을 위한 우리국토, 인민에 맞는 건축 양식 및 구조를 설정하고 새로운 건축운동 전개</li> </ul>

해방과 함께 남북에서 결성된 두 단체는 학술적인 부문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일제 잔재를 어떻게 정리하고, 새로운 사회에서 건축단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에 대한 입장(굵은 글씨 참조)은 크게 달랐다.

해방공간에서 미군정이 실시되던 남한은 해방이전과 동일한 자본주의 체제의 연속성 하에 있었던 반면, 북한은 소련의 지원 하에 사회주의 체제

를 구축하고 있었고, 이러한 차이는 해방을 맞이한 시점에서 새롭게 구성된 남북한의 건축단체가 각기 다짐한 사회적 역할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해방공간의 건축에서 우리가 건축을 논할 때 흔히 논의의 중심에 두는 '건축양식'은 부차적인 문제다. 이는 남한의 경우 건축사의 역할을 필요로 하는 신축행위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건축행위가 매우 활발했던 북한 건축계 역시 건축의 양식보다는 건축에 부여된 사회적 역할에서 볼 때 결과물로 나타나는 건축의 양식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낮았다.

한편, 서울과 평양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남북 건축계의 재편은 해방전 두 도시의 입지와 위상차이 만큼이나 다르게 진행되었다.

남한의 경우 미군정하에서 공공기관의 건축조직은 적어도 1945년 말까지는 식민지조직의 연장선상에서 존재했다. 해방 전 관조직에 근무하던 일인 건축인의 근무도 계속되었고 해방 전 각종 도시 건축 관련 법령은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해방 전과 차이가 있다면 한인들의 역할이 이전에 비해서 강화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공공건축조직을 대표하는 조선총독부 건축조직은 미군정청 건축서로 개편되었고, 조선주택영단 역시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유일한 고등건축교육기관이었던 경성공업전문학교 역시 1946년 8월 각종 관립학교를 통합한 국립종합대학이 설치되기까지 그 체제가 연속되었다. 민간의 건축조직도 일제강점기의 연장선상에서 재편되었다. 한인들에 의해 창립된 '조선건축기술단'은 '조선건축회'를 접수하였으며 후에 건축학회의 모태가 되었고, 건축대사사조합은 조선건축사협회로 이어졌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달랐다. 해방이전부터 조선식민지배의 중심이었던 서울에는 대부분의 식민지 건축조직이 집중되었던 탓에 해방 후 일국을 운영할 수 있는 대부분의 공공건축조직은 서울에 위치해 있었지만 평양에 건축의 하부조직만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국가체제를 정비하면서 대부분의 건축 관련 조직이 일제강점기와는 무관하게 새로운 사회체제에 맞게 새로 만들어졌고, 해방전 북한지역에는 없었던 종합대학이 설립되고 그 안에 건축과도 새로 만들어졌다.

결과적으로 해방공간의 화두였던 친일잔재 청산이 남한건축계에 부담이 되었던 것과 달리 북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하다.

해방공간의 남한건축계에서 외국건축사에 의해 설계된 건축물은 한 건도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외국건축이 이 때만큼 근본적으로 한국건축의 틀짜기에 큰 영향을 미친 시기도 없었다.

### 미군정과 남한 건축생산시스템의 변화

해방이후 한국경제를 움직이는 수레바퀴는 귀속사업체, 민간사업체, 농업경영이었고, 여기에 외국의 원조가 작용하였다. 6.25전쟁이전까지 미국

에 의해 제공된 원조는 5억달러를 넘었는데 이는 경제붕괴를 막는데는 상당한 역할을 했으나 이 과정에서 농민경제는 몰락하고 지주자본의 산업자본화가 실패함으로써 건축자본이 형성되는 길목 또한 막히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해방공간에서 남한 경제를 움직이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원조와 미군발주 공사는 남한의 건축생산시스템의 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 ■ 건축사 부재의 시대

해방공간에서 남북의 건축계는 모두 건설부문에서 활기를 띠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달랐다. 북한의 건축계가 새로운 국가체제 수립과정에서 공공건축물의 신축이 활발했었던 데 비해, 남한의 건설호황은 경기호황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미군의 주둔에 따른 미군 주둔 시설공사 발주와 해방전 2차대전 말기에 억제되었던 건설수요의 일시적 증가와 전신 비축 자재의 방출로 인한 일시적 건설시장의 확대였다.

건축설계를 동반하지 않는 건설시장의 확대는 해방전 관조직 또는 자신의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작품을 남긴 바 있는 대부분의 건축인들이 건축설계를 떠나 토건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 〈표2〉 해방전후 건축인의 소속 변화

이름	해방 전 소속	해방 후 소속		출신 학교 (졸업년도)
		미군정청	정부수립후	
김세연	총독부/ 박길룡건축사무소 운영	대청공영주식회사	김세연건축사무소	경성고공(20)
박인준	박인준 건축사무소 지영	미군정청	대륙공영사	미네소타대(27)
박동진	총독부/태평건설주식회사	개인 설계직업	개인 설계직업	경성고공(26)
강 윤	보리스 건축사무소 소원	고려토건주식회사		대판공업(23)
김순하	총독부	우일사	시공	경성고공(24)
김희춘	총독부, 동경건설주식회사	미군정청	대륙공영사	경성고공(37)
유원준	총독부	신광토건사	신광토건사	경성고공(31)
장영채	총독부	미군정청 건축서	우신토건사	경성고공(23)
유상하	경성부 영선계	극동공영사	이화여대	경성고공(30)

### 〈표3〉 미군정기 공사발주 현황

		1945년	1946년	1947년	합계
기업 관공서 및 기타 공공단체	토목	-	152,187,768	581,352,210	733,539,987(35.20%)
	건축	-	51,702,858	579,949,849	1,113,652,707(53.44%)
	기타	-	108,634,954	128,081,940	236,716,894(11.36%)
	소계	-	776,525,580	1,307,383,999	2,083,909,579(100.0%)
미군발주	토목	2,520	66,004,758	127,273,344	193,280,622(14.01%)
	건축	5,682,270	556,862,672	342,636,539	905,181,481(65.59%)
	기타	4,530,751	176,960,012	100,010,904	281,501,667(20.40%)
	소계	10,215,541	799,827,442	569,932,787	1,379,963,770(100.0%)
민간	토목	50,000	-	9,950,000	10,000,000( 5.12%)
	건축	2,955,000	26,430,000	135,347,208	164,732,208(84.30%)
	기타	1,001,763	2,592,768	17,093,591	20,688,122(10.59%)
	소계	4,006,763	29,022,768	162,390,799	195,420,330(100.0%)
계		14,222,304	1,605,375,790	2,039,707,585	3,659,293,679

조선은행 조사부에서 발행한 1948년 '조선경제연보'에 따르면, 미군관련 공사비중이 당시 공사발주에서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건축주로서 미군 이외의 건축주 비중이 높았던 학교재단의 공사 발주 역시 대부분 원조자금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시기 대부분의 공사는 외국원조와 미군에 의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해방 당시 기득권 층에 있었던 원로 건축인들은 토건업을 통해 자신의 건축 삶을 이어갔다. 이로 인해 남한 건축계는 고려대학교를 건축주로 갖고 있었던 건축사 박동진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성 건축사가 토건업에 종사하게 됨으로써 195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건축사 부재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해방전에 건축실무 경력이 없었던 김태식이 해방공간에서 가장 활발한 건축활동을 보이면서 조선건축사협회를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미군 관련 공사를 수주<sup>1)</sup>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건축계에는 새로운 학습의 기회가 주어졌다. 일제강점기 한국의 건축계는 일본을 통해서 서구의 건축을 받아들였지만, 해방으로 남한 건축계는 서구의 건축 특히 미국의 건축을 직접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중에서 미군 공사를 통한 미국건축의 학습은 한국건축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주한미군발주공사인 FED(Far East District: 극동지부)와 COE(US Army Corps of Engineers : 미 육군공병단) 공사는 미국의 표준설계와 시방서에 의해 엄격히 발주 및 시공감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방공간에서 남한의 건축인들은 디자인보다는 수준높은 건축 공사의 경험과 함께 미국식 건축공법의 경험을 쌓게 되었고, 이러한 경험은 후에 남한 건설업체들의 해외공사 수주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 ■ 해방목수의 등장

해방직후 원조경제체제하에서 미군공사와 원조를 통해 도입된 건축공법이 전래의 건축생산 조직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는데, 해방목수의 등장이 그것이다.

해방목수란 장인정신으로 집을 짓던 조선목수들과는 달리 해방 후 건축 경기의 부흥을 틈타서 도급으로 집일을 맡아 돈을 버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집장사를 하던 목수들을 조선의 전통장인 목수들이 비아냥거림을 담아 일컫던 말이다.

해방후 미군의 주둔과 함께 일시적으로 불어 닥쳤던 건축경기 호황으로 달리 생업수단이 마땅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건설현장에서 생업을 유지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군과 원조자본에 의한 공사의 대부분은 미국의 표준설계와 시방서에 따라 발주되었는데, 응급조치적 성격이 강했던 건축공사는 대부분 오늘날 2×4공법이라고 불리는 표준화된 목재에 의해 지어지는 목구조공법에 의한 것이었다. 이 공법은 부재사이에 특별한 맞춤이 없이 못과 간단한 철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통장인의 수련과정 없이 망치질만 할 줄 알면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가

능했다. 따라서 전통적인 건축생산시스템하에서 배출된 장인은 전통건축 공사가 없는 상황에서 저렴한 인건비로 움직이는 해방목수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없었다. 이러한 현상이 전후 복구기에 더욱 가속화되고 보편화되면서 건축생산현장에서 일제강점기를 버티온 전통장인의 몰락을 가져온 것이다.

전통적인 우리의 건축생산조직의 체계를 바꾸어놓은 핵심적인 위치에 해방목수가 있었던 것이다.

해방목수로 인한 전통장인이 부닥쳤던 현실적 어려움은 최윤식의 각본 '칼국수'<sup>2)</sup>에서 잘 드러난다. 각본 '칼국수'에서 주인 남자는 조선 목수 마지막 세대인 할아버지로부터 조선집 짓는 기술을 물려받은 장인이었지만 서양건축술에 밀려 더 이상 전통건축의 명맥을 잇지 못하고, 건축에서 손을 떼 채 칼국수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해방목수로 살았던 아들이 대결목수였던 부친에게 아버지의 이름만 걸면 공사를 쉽게 수주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놓았다며, 아버지의 협조를 구하자 부정하게 공사를 수주하는 일에 자신의 이름을 걸 수 없다는 부자사이의 대화에서 해방목수에 대한 전통장인 입장이 잘 드러난다.

노인 : 이런 정신 나간 인사들허구는. 그래, 공무원 놈들 꿈꾸니에 돈 봉투나 채워 쥐 가면 사바사바하고, 맡은 일은 청부로 또 맡기구, 원 재목을 제대루 쓰나, 사람을 제대루 쓰나, 너희 해방목수란 것들이 조선집을 죄 망가뜨려 놔여.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다시 그런 일에 자를 들이대지 않을 테니, 어렵는 소리 말아.

(중략)

아들 : 예, 저는 해방목수라서, 평생 톱질하고 문틀이나 짜는 소목 밖엔 안 되서, 요 모양 요 꼴로 살지만, 대결 목수라는 아버지는 해 놓으신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삽니까?

그렇게 조선의 전통장인은 이 땅에서 사라져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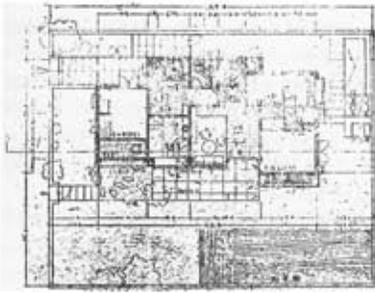
### ■ 현상공모 작품에 나타난 건축경향과 건축사의 태도

건축작품 활동이 미약해서 건축사의 활동을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해방공간에서 시행된 몇 건의 건축현상공모전에 관한 자료가 남아있어 당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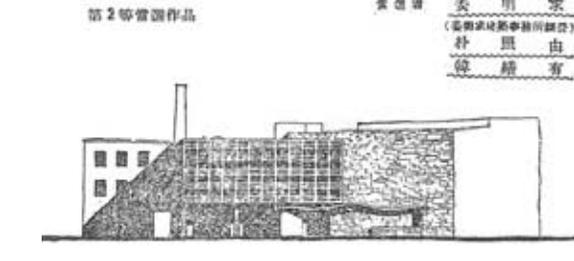
이 시기에는 6개의 현상공모전이 준비되어 그 중 3건이 결실을 보았으며 나머지는 성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6건의 현상공모중에는 주택관련 현상공모전이 3건이 있어 해방공간에서 주택문제 해결이 사회적으로 중요했음을 가늠해 볼 수 있다.

1) 김태식은 해방전 일본고등공업학교 건축과를 졸업했으며, 1946년 2월 미군 308폭격부대 김포비행장 기술중업원 소속, 강당 겸 식당, 진료소 및 후생시설 설계 감리를 시작으로 꾸준히 미군관련 공사의 설계를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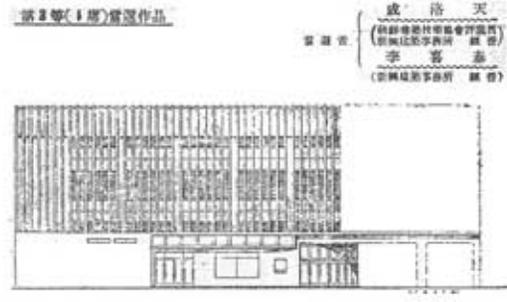
2) 문학리뷰, 1999년 8월



三種(一等)名譽(金)賞



2



4 5

2\_국민주택 25평형 당선안 / 김희춘 작 4\_서울만물전 2등안 / 강명구 작 5\_서울만물전 3등안 / 성낙천, 이희태 작

최초로 시행된 '국민주택현상공모'는 '조선주택영단'이 후원하고 '조선건축기술단'이 주최한 것으로 도회지 또는 그 교외를 대지로 15평, 20평, 25평의 3가지 규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총 86점이 출품되어 24점이 당선되었는데, 당선안은 '조선주택영단'에서 수정과정을 거쳐 실제 주거를 공급하는 모델로 사용되었다.<sup>3)</sup> 심사평에 따르면 제출된 안은 전체적으로 집중형 평면을 갖추고 있어 도시한옥의 일반적인 채와 칸의 특성과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 현상공모안의 전체적인 경향은 입식생활에 기초한 거실중심의 서구 지향적 생활환경 개선의 경향성을 좇고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해방전 문화주택에서도 나타났던 경향인데, 이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김희춘의 당선안이다. 김희춘은 25평 국민주택안에서 침대 겸할 수 있는 운동시스템을 제안한 주택안을 제출하였다. 입식생활을 위해서는 침대가 필요했지만 침대를 갖출 수 없는 경제여건과 운동에 대한 뿌리 깊은 선호도를 조합해서 운동방의 일부를 침대높이로 만든 것이다. 현실적으로 수용되지는 않았지만 이는 전통적인 거주패턴을 수용하면서도 서양의 입식생활을 지향하고자 하는 건축사의 입장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그림2)

민간 부문에서는 '서울만물전' 현상공모가 1947년 시행되었다. 극장겸용 백화점의 용도를 갖고 있던 서울만물전 현상공모전에서 건축사 김태식의 안이 당선되었으나 실현되지는 않았다. 당시 당선안들의 작품에 대해 건축사 박동진은 『한국인 건축가의 대두와 그 업적의 의의』라는 글에서 "1930년대 말에서 1940년대 초반에 걸쳐, 합리주의 내지 국제주의적인 경향의 영향에 다소나마 젖었던 세대"라고 평한 바 있다.(그림 3)

만물전 현상설계에서는 해방전 일본에서 수학한 30대 전후 젊은 건축인들의 수상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현상은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기성 건축인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대부분 관계에 머물거나 토건업으로 진출한데 반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장을 구하기 어려웠던 젊은 건축인들이 현상설계에 적극 참여한 때문이다. 당선안은 이전 시기의 건축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데 이는 당시의 건축상황에서 실현 가능한 작품이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만한 것은 2등과 3등을 차지한 강명구와 성낙천·이희태

의 안이다. 이들 작품들을 커튼월로 디자인되었는데 커튼월 디자인 건물이 해방전에는 지어진 선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2차세계대전후 공

업기술에 기초한 테크놀로지 건축미학을 선도하던 미국 중심의 국제주의 건축경향을 젊은 건축사들이 빠르게 흡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그림 4, 5)

두 건의 현상공모에서 당시 젊은 건축인들이 간접적으로 체험한 미국의 새로운 건축경향을 좇는 경향성이 강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동시대 북한의 건축경향과 차별화된 모습을 갖는다.



3

서울만물전 당선안 / 김태식 작

### 사회주의 체제 구축기의 북한건축

해방공간의 북한건축 모습에 대해서는 조선건축기술단의 기관지인 『조선건축』에 실린 '북한의 건축동향'과 김중업의 회고를 통해서 단편적으로 알려진 바 있다.

『조선건축』 창간호에 실린 북한의 건축동향에 따르면 '북조선공업기술총연맹 건축위원회'는 해방직후 1945년 8월 25일 진보적 건축사 13인이 '건축협회'를 결성하고 9월 23일 협회를 동맹으로 개칭하였으며, 평양의 건우회 기타 각 도에 결성된 건축단체를 전부 조직하여 1946년 5월 10일 통일전선체로서 '북조선건축동맹'을 결성하였다. 당시 맹원 수는 약200명이었으며, 민주주의 사회단체로서 '민주과업 실천과 건축문제 해결, 건축

3) 이영한, '1945~1946년도 국민주택현상안의 전통적 공간구성 특성에 관한 연구', 무애 이광노 교수 정년퇴임기념 <<건축학 논총>>, 1993

기술자의 정치적 기술적 향상, 학술연구를 위한 자료수집 등에 표방하고 나섰다

동맹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건축위원회의 결정서의 내용은 앞의 '표'와 같다.

당시 북한에서 해방을 맞이했던<sup>4)</sup>때 김중업의 저서에 따르면, 김중업은 해방 직후 공산청년동맹에서 활동하면서 '건축동맹'을 창설하는데 참여하였으며, 동맹에서 연구부장을 맡았다고 한다. 건축동맹은 일제강점기 '금천대 회관'을 접수하여 '건축동맹회관'으로 사용하면서 소위 5도의 건축동맹원을 재훈련시키는 활동을 하였다고 한다.

위의 2가지 사실에서 북한의 건축조직이 남한보다 신속하게 결성되었고 보다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활동범위도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결정서의 내용에서 건축기술자의 사상적 훈련과 건축업계 모리업자의 숙청 단행, 생산성 향상 그리고 일반대중 대상의 강력한 선전사업 전개 그리고 우리 '인민에게 맞는 건축양식' 및 '구조의 설정'과 '건축운동 전개' 등을 표방한 것은 '조선건축기술단'의 그것과 비교해서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이러한 북한에서의 건축조직의 활동은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한 이후 건축이 자본주의 인간형을 사회주의 인간형으로 바꾸는 사회적 응축기(social condenser)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것과 비견되는 부분이다. 서구에서 소련이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였다면 아시아에서 북한은 비서구권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건설의 현상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구축은 도시와 건축에서 소련의 영향이 강하게 자리잡게 된다.

해방과 함께 북한에서는 도시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첫 건설프로젝트로 보통강개수계획이 시행되었다. 북한의 해방 후 첫 프로젝트가 정치적인 의미와 상징성이 강한 국가상징 건축물이 아닌 만년 홍수피해에 시달리는 평양시민의 삶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였다는 사실은 사회주의 체제의 상징성을 갖기에 충분한 의미가 있다.(그림 6)

4) 김중업의 회고 김중업, 「건축가로서의 회고와 전망」, 꾸민, 1981, 5/6

6\_보통강 개수공사 기념탑 7\_김일성종합대학 8\_만경대혁명학원



북한에서 국가체제를 갖추기 위해 많은 건설활동이 전개되면서 건축사에게 많은 역할이 부여되었으나 해방공간에서 북한사회가 심혈을 기울였던 국가프로젝트에서 건축사가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았다.

리화선의 '조선건축사'에 따르면 해방공간에서 북한의 건설이 얼마나 활발했는지 잘 나타난다. 1944년에 비해 1949년에 인민학교 수가 2.8배로,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가 22배로, 전문학교 수가 12배로 늘어났으며, 대학은 15개가 새로 설립되었다. 도서관은 7개에서 103개로 증가하였으며,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건축물인 민주선전실이 1950년 3월 현재 18,200개나 생겼으며, 각종 노동자 구락부도 168개 지어졌다고 한다.

이들 건축물은 새로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실천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민주선전실과 같은 건축물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실천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건축물로서 북한사회에서 수요가 매우 큰 건축물이었다.

특히 자본주의에 익숙한 사람들을 사회주의 인간형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학생과의 교양기관, 노동자구락부, 청년회관, 민주선전실은 필수적이었으며, 여성을 가사노동과 육아에서 해방시킴으로써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 지위를 갖게 하겠다는 사회주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탁아소와 유치원도 필요했다. 따라서 해방공간에서 집중적으로 건설된 이들 건축물에서 건축물의 양식적 특징이나 가치를 논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이들 건축물들이 건축사의 손에 의해 지어졌을 지라도 건축물 자체의 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가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 자본주의 도시에서 사회주의 도시로의 전환과 신고전주의 건축양식

한편, 도시에서는 광장과 공원이 적극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했다. 광장이 조성되기 전에는 역전광장, 공설운동장, 학교마당 등이 정치행사 장소로 사용되었으나 도시개건사업을 통해서 동평양 해방호텔 앞에 광장을 조성하고, 기존의 역전광장 등은 새롭게 단장되었다. 사회주의 국가로 새롭게

출발하는 북한에서 광장은 인민대중의 정치, 문화적 행사 중심지의 역할과 함께 선전 선동의 중심공간의 역할을 수행했다. 광장은 사회주의 체제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는 교육과 계몽의 기능을 담당했던 것이다.

공원도 전국 주요 도시 곳곳에 마련되었다. 평양의 모란봉공원과 해방공원, 원산의 해방공원, 신의주의 해방공원, 흥남의 해방공원, 강계의 아동공원 등이 북한 전역에 건설되었다. 일제강점기 신궁과 신사를 철거한 뒤에는 예외없이 공원이 조성되었다.

사회주의가 산업혁명으로 삶의 환경이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진 자본주의 대도시를 배경으로 탄생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사회주의 입장에서 공원의 조성은 노동자가 주인인 사회주의의 이상이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회적 약속이자 사회주의 이념의 상징 장치이기도 했다.

해방공간에 건설된 수 많은 건축물의 설계자는 대부분 알려져 있지 않지만 북한에서 역점을 두었던 주요 건축물의 경우 양식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 주목된다.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위해 역점을 두었던 5대 건물인 김일성종합대학교, 내각청사, 중앙종합병원, 노동자아파트, 노동신문사청사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들 건축물들을 한 곳에 집중 배치한 것이 아니라 도시의 성장을 감안하여 분산 배치하였는데, 이는 도심으로의 집중을 막기 위한 도시계획적인 차원의 입지선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평양에 2개, 동평양에 2개, 서평양에 1개 분산 배치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 주요건축물의 건축양식이다. 김일성종합대학과 만경대혁명학원, 중앙종합병원 등은 정면성을 강조하는 좌우대칭으로 구성되었으며, 건물의 외관은 기단부와 열주 그리고 삼각형 모양의 박공지붕의 모습을 갖춘 신고전주의 건축의 양식특성을 갖고 있다.(그림 7, 8, 9)

개항후 이 땅에는 서양인 건축사와 일인 건축사에 의해 석조전과 구조선은행(한국은행), 조선총독부, 경성역(서울역) 등의 관공서가 신고전주의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바 있지만 1920년대 후반들어 이들 신고전주의 건축은 더 이상 지어지지 않았고, 모더니즘 건축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그러한 경향성은 남한의 경우 해방이후에도 지속되었다. 그러나 20여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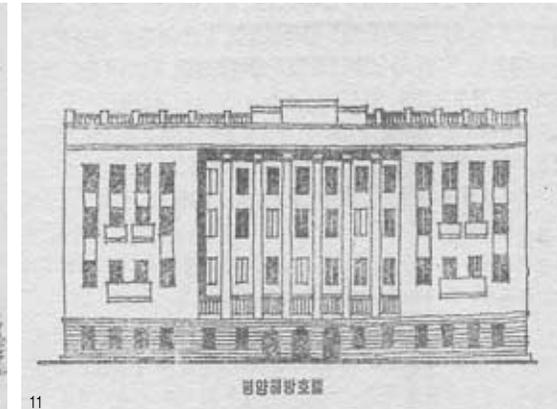
시차를 두고 북한의 사회주의 국가 출범과 함께 건설된 주요 공공시설물들이 대부분 신고전주의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의 사회주의 정권 출범기의 건축활동에 소련의 지원이 절대적이었음을 의미한다.

해방 당시 남북한에서 고등건축교육을 받은 사람은 경성고공에서 60여명, 일본유학생 100여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 중에서 경성고공출신중 20여명이 월북 또는 재북의 형태로 북한에서 건축활동을 하였고, 비슷한 비율의 일본 유학생이 북한에서 건축활동에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해방 당시 건축설계의 경험이 있던 건축인들 중에 박동진을 제외한 대부분은 대규모 건물을 설계해 본 경험이 거의 없었을 뿐 아니라 월북건축사는 학교를 졸업한지 얼마 되지 않는 젊은 건축인들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건축설계 실무에 대한 경험은 더욱 부족 했다. 따라서 이 시기에 평양에 건축된 대규모 공공건축물의 설계는 소련의 건축사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철지난 건축양식이 되어버린 신고전주의 양식의 건축물이 2차세계대전 이후에 그것도 역사적 맥락이 전혀 없는 평양에 지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일찍이 세계최초로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한 소련에서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실천을 위해 도시와 건축의 사회적 역할에 주목했고, 그 결과 디자인에 이데올로기를 접목하는 실험이 진행되면서 러시아구성주의라는 서구 모더니즘을 주도하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1930년대 초반 스탈린의 집권과 함께 점점 추상화되면서 대중과의 소통이 단절되어가는 러시아구성주의 건축은 형식주의로 비판 받게 되었고, 대중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스탈린은 러시아의 역사문화환경에서 친숙한 고전주의 건축을 적극적으로 부활시켰다. 그러한 흐름이 1950년대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해방직후 북한에서 소련의 지원하에 건축되는 공공건축물은 자연스럽게 소련과 동유럽에서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어진 것이다.

이들 주요 건축물이 소련의 건축사에 의해 지어졌다는 공식기록은 알려진 바 없지만 조선건축사에서 '평양기차역'이 '우리 손'으로 설계하고 건

9\_조선중앙종합병원 10\_평양역 11\_평양해방호텔



설한 첫 현대적인 역사건물이라고 기술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흥미로운 것은 첫 북한건축사의 설계작업인 '평양기차역'의 디자인이다. 평양역은 중앙에 탑을 배치하고 양쪽에 기둥이 배열되어 수도 평양의 관문으로서의 상징성을 갖도록 설계되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중앙의 탑이 8각형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과 양편의 기둥이 각기둥이라는 사실이다. 평양역에는 전체 구성에 있어서는 중앙을 강조하는 좌우대칭구성과 서양건축에서 핵심적 의장요소인 열주를 사용하면서도 8각형의 조형 언어를 통해 조선의 전통적인 디자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8각형은 서양의 역사주의 양식건축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조형 언어다. 8각형이 주요 건축어휘로 사용된 것은 북한에서 8각형을 자신들의 전통적인 조형언어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8각형의 조형언어는 북한에 소재한 고구려의 역사유적 곳곳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평양에서 발굴된 금강사(498년)외에도 정릉사, 반룡사 등에서 8각탑의 기단이 발견되고 있을 뿐 아니라, 2개의 기둥이 사용되어 쌍영총(雙靈塚)이라 불리는 남포시 용강군의 기둥도 8각형이다. 이러한 전통건축요소의 채택은 인민에 맞는 건축양식을 추구하겠다는 건축위원회의 결정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그림10)

이밖에도 이시기에 건축된 3~5층 규모의 공공건축물은 대부분 중심을 강조하면서 대칭적으로 지어졌다. 평양해방호텔의 경우 기둥-보식구조와 벽식구조를 혼용해서 지어졌는데, 이러한 건축양식은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정면성을 강조하는 좌우대칭으로 지어지는 신고전주의적 정면구성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평양해방호텔의 건축양식은 르네상스건축 풍의 신고전주의 건축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11)

한편, 공공건물에서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주제의 조각들과 장식들이 등장하였는데, 1947년 준공된 평양 모란봉극장 정면의 양쪽에 사회주의의 주제로 표방된 로동자, 농민, 인텔리 등의 조각상이 만들어지고, 김일성종합대학 본관을 비롯한 주요 건축물에는 낫과 망치 등 로동자, 농민 그리고 공업과 농업을 상징하는 장식들이 사용되어 건축의 사상예술적 역할을 부각시켰다.

## 맺음말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 사회체제가 만들어낸 물리적인 변화가 도시와 건축에 선명하게 각인되기 시작하였지만 자본주의 사회체제를 유지했던 남한의 경우 해방공간에서 도시 건축의 물리적인 외적 변화보다 건축생산시스템의 변화와 건축사 부재시대라는 기형적 상황이 발생했다.

남과 북이 해방공간에서 각기 다른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처해 있었기에 그로인해 건축의 사회적 역할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해방공간에서 남북 모두 건축사의 작업을 필요로 하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남북이 각기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건축에 부여된 사회적 역할과 건축사 스스로 다짐하는 역할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고, 해방공간을 통해서 남과 북의 각기 다른 사회체제는 다른 지향점을 향해 다른 도시와 건축의 모습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해방공간은 한국건축에서 남북한 근현대건축이 분화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기다. 한국건축사는 개항이후 외세의 개입과 함께 전통건축과 시간의 단절이라는 뚜렷한 한계점으로 작용하면서 단절의 극복이라는 과제를 남겼다면, 해방은 한국건축을 공간적으로 분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다른 체제와 다른 지향점이 만들어낸 도시와 건축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를 부과하였다. ▮